유비쿼터스 시대 글쓰기와 주체형성, 그리고 인문학*

강내희**

〈차 례〉

1. 유비쿼터스 시대와 인문학
2. 글쓰기의 변동과 주체 형성
3. 유비쿼터스 시대의 글쓰기와 기계적 인간
4. 유비쿼터스 시대의 인간과 인문학
5. 결어

【국문초록】

이 글의 취지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고, 그로 인해 인문학은 어떤 변동과 과제를 안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유비쿼터스 시대에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글쓰기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글쓰기 문화, 문자문화, 책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글이 인문학의 정체성 구성에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 이 논문은 2008년 5월 23일에 열린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중앙대 한국현대문화연구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뉴미디어 시대 문화와 인문학')에서 제출한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화연구학과 교수.

글쓰기 방식은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 가운데서도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둔 '전도'와 같은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이 등장하면서 글쓰기가 부호화하고 연산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이런 새로운 글쓰기는 주체형성 조건을 어떻게 변동시키며, 인문학의 존립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디지털 글쓰기와 전도에 의한 정보 전달은 글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글은 이제 더 이상 해석하는 정신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정신이 아니다. 인간의 신체와 두뇌 속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인간을 연구와 탐구의 주된 주체이자 대상으로 삼는 인문학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질문을 통해 인문학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려는 시도이다.

주제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글쓰기, 주체형성, 인문학, 기계복제, 디지털 복제, 전도

1. 유비쿼터스 시대와 인문학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통상 "모든 것을 컴퓨터로 연결하고, 컴퓨터가 모든 것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대"로 정의된다.[1] 지금 임박한 시대를 '유비쿼터스 시대'라 부르는 데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그 성격을 핵심적으로 규정한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다. 위키피디아

1) 심광현,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예술-학문-사회의 수평적 통섭을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9, p. 9, p. 374.

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정보 처리가 일상적 대상 및 활동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포스트-데스크톱 모델의 인간-컴퓨터 대화"로 정의한다. 단일 사용자가 특정 목적으로 단일 장치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데스크톱 패러다임이라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용자로 하여금 일상 활동 속에서 수많은 연산 장비와 체계를 활용토록 하는 데 특징이 있다.[2] 네이버 용어사전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포스트-PC 컴퓨팅에 속하며 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쉽게 말해 현재의 컴퓨터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컴퓨터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컵이나, 자동차, 안경, 신발과 같은 일상적인 사물에 제 각각의 역할에 부합되는 컴퓨터 기능과 네트워크 장치를 넣어 물체 간, 그리고 물체와 인간 간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예로 자동 요리를 들자면, 스마트 전자레인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조리법을 물어 보고 스마트 냉장고는 처음 보는 상품의 적정 온도가 얼마인지를 인터넷에 문의하며, 또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피자를 조리하는 스마트 전자레인지는 냉장고에 요리 재료가 충분한지를 물어 본 후 냉동된 요리 재료를 녹여줄 것을 요청한다.[3]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보편화할 경우 예상되는 것은 이처럼 삶의 기계화요 자동화다. 스마트 전자레인지, 스마트 냉장고를 포함한 다양한 컴퓨팅 및 네트워킹 장비나 체계가 널리 보급되면 각종 기기들 간의 정보 교환은 물론이고 인간과 컴퓨팅 기계의 정보 교환도 만연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결과 광범위한 자동화 기술의

---

2) "Ubiquitous computing,"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 Ubicomp 참조.

3)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04&docId=24166.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유비쿼터스 기술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오늘 그 기술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술이 펼쳐질 것이라는 말은 테크노토피아 전도사들의 입에서는 줄기차게 나오고 있지만 과장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과학기술은 현재 대부분 자본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고 그에 대한 찬사도 주로 첨단기술 광고를 통해서만 배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의문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기술이 상당히 널리 보급되고 있음을 무작정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서도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는 강 건너 불은 아닌 듯하다. 한국 정부는 2006년 12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지원법'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7년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2008년 2월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후 2008년 3월 제정 공포했다.[4]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구축되기도 했는데, 2008년 4월 'U-시티' 형태로 준공된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가 그것이다(374). 'U-시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구내의 시설, 설비 전반에 도입된 공간으로서, "2015년경에는 한국에서만도 230만 명이 인구"(9)를 거주시킬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유비쿼터스 시대가 꼭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듯하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이미 오늘의 일상적 삶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GPS, CCTV, 스마트카드(신용카드), 디지털오디오플레이어, 무선주파수인식표, 스마트보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그 예들이다. 인텔리전트빌딩의 경우에는 "공기조절·조명·방재(防災) 등의 자동제어가 가능한 빌딩 오토메이션", "디지털 PBX 교환기를 중심으로 하

4) 심광현, 앞의 책, p. 374.

는 근거리통신망(LAN)의 텔레오토메이션", "PC · 워드프로세서 · 팩시밀리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자동화 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5]

물론 이런 삶을 마냥 찬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것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겠지만, 이런 새로운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 신자유주의 생산관계와 맞물릴 경우 기왕의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6] 뒤메닐과 레비가 지적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자본이 벌이는 계급투쟁이고 "처음부터 [자본의] 계급 권력의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7] 신자유주의의 이런 기획은 근래에 들어와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데서 보듯 갈수록 더 많은 인구의 사회적 배제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을 유발한 것은 노동유연화 정책이고, 이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포함한 기술혁신이었다. 2007년 말에 서브프라임모지기 위기가 불어 닥친 뒤 금융, 나아가 산업 분야에까지 위기가 도래한 미국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오늘 신자유주의는 누가 보더라도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여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던 동안에 진행된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람시가 지적한 것처럼 헤게모니의 위기는 더 큰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곤 하는데, 신자유주의의 위기도 그럴 공산이 크다.[8] 이것은 동탄 신도시와 같은 U-시티의 건설을

---

5) 「인텔리전트빌딩」,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 nhn?docid=129803.

6) 심광현, 앞의 책, p. 378.

7) Davie Harvey,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6.

8) 그람시에 따르면 헤게모니의 위기는 헤게모니 지속 국면에서 유지되는 '동의에 의한 지배'를 해체하고 더 폭력적인 지배를 가져온다(Gramsci, 60-61).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U-시티와 같은 공간의 구축은 고도기술을 전제하지만 고도기술은 자본의 사회 지배를 위해 활용되곤 한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특정한 사회적 위상을 누리는 인구, 양극화 과정에서 승리한 세력을 위한 '중세적 요새 구축'에 동원되면서 다수 인구에게는 디스토피아의 공포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인간의 삶과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중대한 지각 변화, 인간 주체의 형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삶이 고도로 자동화되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는 큰 변동이 생기고, 인간의 존재, 위상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지배하고 우리의 삶이 자동기술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여전히 전통적 의미의 '인간'인 것일까?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개념은 1988년 제록스 팰러 앨토 연구소(PARC)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차세대 컴퓨팅 비전으로 제시한 인간 중심의 컴퓨팅 기술, 즉 사용하기 쉬운 컴퓨터 개념에서 비롯되었다."[9] '인간 중심의 컴퓨팅 기술'이라는 관점은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도구적 이해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술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으로, 따라서 인간은 여전히 주체로 남고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과연 기술은 도구일 뿐일까? 혹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은 고도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역전되는 것이 아닐까?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특징은 사용자가 일상생활을 통해 각종 연산 장치와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

알튀세르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보다는 억압적 국가장치에 의존하는 지배가 강화된다는 말일 것이다(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towards an Investigation)," On Ideology [London: Verso, 2008], pp. 22-24).

9) "Ubiquitous computing,"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 Ubicomp 참조.

는다는 데 있다. 과학기술과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그만큼 고도로 자동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이다. 위키피디아는 기술적 환경에 대한 의식의 후퇴를 이런 자동화의 한 효과라고 설명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람들은 일상 활동 속에서 수많은 연산 장비와 체계를 활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자동화' 현상이 연산 장치와 체계와 연결된 인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미 기계인간, 사이보그가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이보그인 '우리'는 과연 우리이긴 한 것일까?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도입과 확산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인문학의 미래에 대해서도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셈일 것이다. 인간이 과연 인간인 것인지, 혹시 기계인 것은 아닌지가 의문에 붙여진다는 것은 인문학을 성립시키고 있는 이론적 전제 자체가 뒤흔들린다는 말이다. 그동안 인문학은 당연히 인간의 문제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아왔다. 인문학이 전통적으로 인간주의(humanism)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온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주의에서 인간은 '주체'로 설정된다.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 독자적 실체라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인간은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된다.[10]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이렇게 이해되는 인간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다.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이 자동 기계처럼 바뀐다면 인간주의가 전제한 인간의 정체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인문학의 위상과 과제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를 맞아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

10) Patrick Fuery and Nick Mansfield. *Cultural Studies and Critical Study*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게 변하고, 그로 인해 인문학은 어떤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고 변동을 겪게 될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유비쿼터스 시대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글쓰기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글쓰기 문화, 문자문화, 책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글이 그만큼 인문학의 정체성 구성에 중요했다는 말인데,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르러 가능해진 기술 환경은 글쓰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글쓰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는 주체형성 조건을 어떻게 변동시키며, 이것은 인문학의 존립이나 정체성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인문학이 어떤 문제와 과제를 안게 되는지, 인문학 자체는 어떤 변동을 겪을 것인지, 새로운 조건에서 인문학은 어떻게 변해야 할는지 생각해보기 위함이기도 하다.

2. 글쓰기의 변동과 주체 형성

서양에서 인간주의가 인간과 삶을 이해하는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인쇄기술의 수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근대 서구 인문학의 원동력인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구텐베르크 은하계' 없이도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인간이 특정한 인간으로 되는 방식과 글쓰기 사이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한다.

글쓰기와 주체형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인정한 바 있다. 마셜 맥루언에 따르면 서구에서 인쇄기술이 보급된 것은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 활판 인쇄 기술과 그 사회적 효과는 우리가 다섯 개 감각의 상호작용을 주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인쇄물은 인간이 가진 제 기능을

> 각기 분리하여 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쇄물은 분리와 구획화 혹은 전문가의 관점을 제외한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점차 저항하는 정신을 강화시킨다.[11]

인쇄본이 오감의 상호작용을 주목할 수 없게 만들고 인간의 제 기능을 분리하고 구획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시각 중심의 지각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활판 인쇄술의 결과"는 "경험이 시각이라는 단일 감각으로 환원되어가는 현상"(251)이다. 맥루언은 이 과정을 투시도법의 고안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투시도법은 구체인 지구를 평면인 지도 위에 투사하는 방식으로서 공간을 "획일적이고 연속적"(30)인 것처럼 재현한다. 인쇄술이 투시도법과 비슷한 것은 필사본이 널리 사용될 때까지도 시각 이외에 청각도 계속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탓에 복수 감각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던 독서를 이제 시각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필사 문화란 인간 감각성의 청각-촉각적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청각-촉각적 양식은 추상적인 시각 혹은 모든 감각을 통합되고 연속적인 회화 공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224)었다. 반면에 인쇄 문화는 청각이나 촉각 등 다른 감각을 배제하고 시각 중심으로 독서를 하도록 만든다. 이런 점은 "대상의 크기, 형태, 위치를 비율상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원래의 대상과 일치하게끔 보이게 하는" 투시도법과 상통하는 원근법과 유사하다.[12] 인쇄 문화로 출현한 것은 그렇다면 감각들의 비율 변화에 해당한다. 전체 감각들 가운데 시각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 "우리의 5개 감각들 간의 지배 비율은 바뀌게 된다"(56). 맥루언은 인쇄 문화가

---

11) 마셜 맥루언, 『구텐베르크 은하계—활자 인간의 형성』, 임상원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 253.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본문에 표기한다.

12) Williams Ivins, *Art and Geometry: A Study in Space Intui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6. p. 41. 맥루언 p. 225에서 재인용.

시각의 우위를 불러옴으로써 '내부 지향적 인간'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 '내부 지향적'이란 말은 곧 하나의 '고정된 관점'에 의존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안정된, 지속적인 성격은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모습, 거의 최면술에 걸린 것 같은 시각적 자세 같은 것이다. 손으로 글을 쓴 수고(手稿)란 하나의 고정된 관점, 혹은 사고와 정보를 단순한 하나의 평면 위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던 습관을 공급하는 데는 너무 느리고 한결같지도 않다(63).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모습, 거의 최면술에 걸린 것 같은 시각적 자세"는 책을 읽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자세를 통해 인간은 "안정된, 지속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보고 있다.

월터 옹도 글쓰기의 등장과 그 방식의 변화가 의식을 개조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과학이 출현한 것은 인쇄 기술에 의해 글쓰기가 바뀌어 "정확하게 반복 가능한 시각적 진술"이 가능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 새로운 정확하게 반복 가능한 시각적 진술의 한 결과가 근대 과학이었다. 정확한 관찰은 근대 과학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그것은 예컨대 많은 종류의 사냥꾼, 장인들의 생존에 언제나 필수적이었다. 근대과학에서 다른 점은 정확한 관찰과 정확한 언어 표현의 결합이다. 세심하게 관찰한 복잡한 대상들과 과정들에 대해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한 서술인 것이다. 면밀하게 제작한 기술적 인쇄(처음에는 목각, 그리고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좀 더 정확해진 금속 조판)의 활용이 그와 같은 정확하게 말로 표현된 서술을 가능케 했다. 기술에 의한 인쇄와 기술에 의한 언어 표현은 상대방을 강화하고 개선시켰다. 그에 따른 시각 중심의 지적 세계는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13]

---

13) Walter Ong, *Literacy and Oralit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옹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과학적 진술, 나아가서 과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은 관찰의 정확성과 언어 표현의 정확성이 서로 결합될 수 있게 만든 인쇄 기술의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인쇄가 "근대 사회를 특징짓는 개인적 프라이버시 감각을 만들어낸 주된 요인"(130)이라고 지적한다. 인쇄된 책이 나오면서 "조용한 구석에서의 단독 독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묵독"(131)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내면세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적 프라이버시, 사적인 내면세계는 근대 이전에는 보기 힘든 주체성의 특징으로 통상 근대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옹은 이런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된 이유를 글쓰기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데서, 글쓰기가 인쇄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데서 찾고 있다.

여기서 잠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쇄된 책의 문화, 인쇄술로 가능해진 글쓰기로 새롭게 등장한 개인들은 근대적 개인으로서 '인문주의자'라는 사실이다. 르네상스 시기 인쇄술로 보급된 글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자층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인문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이 인문주의자들은 당시의 인간주의를 구현한 전형적 인간이었고,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만들어간 개인들이었다. 여기서 인간주의의 발흥이 책 문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는 관점이 성립한다.

맥루언과 옹이 인쇄문화 또는 책문화를 통해 개인 주체의 등장을 본다면, 베네딕트 앤더슨은 그런 개인들이 집합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글쓰기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앤더슨도 근대 초의 문자문화가 근대적 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지만 그의 강조점은 이 주체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었다는 데 있다. 앤더슨에 따르면 민족은 상상된 집단적 정체성이다. 사실 민족에 속하는

Methuen, 1982), p. 127.

성원들은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민족 공동체에 속하는 존재들이다.[14] 이때 인쇄술에 기반을 둔 문자문화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인들로 하여금 서로 친교의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앤더슨에 따르면 근대 소설과 신문이 이런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소설과 신문은 민족과 같은 상상의 공동체를 ‘재현’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48). 근대 소설과 신문이 이런 기술적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쇄매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소설은 수고(手稿)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신문 이외에 편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고 소설이나 편지는 소수의 개별적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었다. 반면에 근대소설과 신문은 인쇄기술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을 대중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인쇄기술의 도입은 구술문화 중심의 기존의 글쓰기로 하여금 면대면 소통을 한계를 벗어나게 한 중요한 기술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구어 소통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은 대면적 관계에 종속되어 ‘직접 경험의 골짜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골짜기 경험’은 사람들을 부족적 상상력에 가두어 내부 결속력을 촉발할는지는 몰라도 자기 마을이나 지방을 벗어난 대처와의 소통, 타지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는 걸림돌이 된다. 반면에 신문이나 소설을 통해 소통할 경우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이방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각 골짜기에 흩어져 살던 청년들이 아침 신문에 난 외국과의 임박한 전쟁 보도를 읽고 ‘조국’을 지키고자 군 입대를 자원하곤 한 것은

14)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역, 나남, 2002, p. 25.

대면 교류가 전혀 없던 타 지역 사람들과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공유한 때문이다.

개인, 민족과 같은 근대적 주체 형태들의 등장이 글쓰기 매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맥루언, 옹, 앤더슨 등의 견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의 견해를 수용할 경우 주체의 형성은 글쓰기와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주체의 형태가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글쓰기의 방식 역시 역사적으로 변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같은 관점에서 근대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을 근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글쓰기와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글쓰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커다란 변동을 겪었다. 전근대에 사용되던 '-라' 종결어미가 사라지고 대부분이 '-다' 체계로 통합된 것이다. 과거 '-라'와 '-다'가 함께 쓰이던 종결어미 용법이 '-다' 체계로 통합된 결과 한국어 문장들은 '명제적 효과' 또는 '단정 효과'를 갖게 된다.[15] 이는 과거 '하대체'에 해당하는 '-었다', '-ㄴ다' 형의 종결어미가 널리 사용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투'[16] 또는 '고백의 제도'[17]가 일반화된 결과로서, 이로써 한국어에서 개인적 자아의 내면이 풍경처럼 묘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아의 내면을 풍경처럼 묘사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사적 세계를 펼치는 근대소설에만 국한되지 않는

15) "'-다' 문장들은 발화된 내용을 사실로 수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발화내용과 일종의 동시대화, 또는 공감을 일으키게 한다. 이 효과는 서사에서는 이야기세계와, 논문에서는 논증된 내용 또는 논리와, 신문보도에서는 보도내용의 사실성과의 동시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들과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강내희, 「종결어미 '-다'와 한국의 언어적 근대성」, 『흔적』 3호, 2008. p. 193.

16)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사, 2000, p. 249.

17)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1997. pp. 103-29.

다. 신문기사나 논문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화자의 내면적 확신을 객관적 세계의 사실로 전환시킨다. 근대 한국어의 종결어미가 '-다'로 통합됨으로써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그', '그녀'와 같은 주어가 등장한다는 것, 이를 통해 과거 모호하게 호명되던 인물들이 분명한 형상을 갖추고 나타나게 됨으로써 근대적 주체 형태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와 '그녀'는 한국어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자아를 갖춘 주체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한국어 문어체 종결어미의 새로운 변화가 중요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는 인쇄매체의 광범위한 확산과 더불어 문어체가 구어체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빌렘 플루서가 지적한 것처럼, "책 인쇄의 발명,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의무교육 도입 이래로 인간들[은] 말하기 위해 문어를 배워야만 했다."[18] 오늘 말하는 사람은 이에 따라 무엇보다 글을 먼저 깨친 사람이고, 또한 문어체를 익힌 사람이다. 맥루언, 옹, 앤더슨의 설명을 참조한다면 글을 깨친 사람은 시민, 계급, 국민, 민족, 개인으로, 다시 말해 각종 근대적 주체 형태로 호명되거나 형성된 사람이다.

근대적 주체의 출현은 물론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언어적 근대성이 한국에서 구축될 무렵 서구에서 문자문화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20년대에 한국에서 근대적 언어가 형성될 즈음 서구에서는 사진과 영화 등 새로운 표현매체가 이미 등장하여 그로 인해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각매체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어 대중문화 지형에서는 독주가 끝나기 시작한 것이다.[19] 모더니즘 소설의 등장인물이 정신분열 증세를 드러내곤 한 것은, 또는 등장인물의 내면 독백이 과거 리

18) 플루서,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 59.

19) 맥루언에 따르면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이론적으로 1905년 곡선형 공간의 발견과 함께 해체되었다"(p. 482).

얼리즘 소설에서처럼 통일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 수법과 같은 파편화된 모습을 띠게 된 것은, 한편에서 보면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등이 선보인 몽타주 수법과 같은 영화적 표현 방식이 소설의 근대적 글쓰기 영역에 수용된 사례이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근대 초기에 구성된 안정된 주체 형태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아시아에서는 서구에서 근대소설이 리얼리즘에서 모더니즘으로 전환될 시점에, 다시 말해 근대적 주체의 동요 현상이 드러나는 시점에 새로운 민족적 주체들을 형성하는 근대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근대소설이 등장하는 시점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 나라에서 소설이 출현한 것은 서구에서 소설이 영화나 사진의 등장으로 새로운 표현 전략을 추구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한국, 중국, 일본의 문자문화가 서구의 그것과는 양상이 다름을, 그리고 근대적 주체 형성의 조건도 문화적으로 다르게 구성됨을 보여준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근대소설이 인쇄자본주의가 발전하는 18세기 중반에 신문과 거의 동시에 등장했다면 한국에서 근대소설은 영국에서처럼 신문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지만,[20] 그 시점은 영화와 사진이 이미 널리 퍼진 이후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중요한 국제적 갈등 요인으로 등장한 것과 서구와 동아시아의 이런 차이,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유사한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경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적 삶, 민족적 삶의 형상화가 리얼리즘 미학의 영향을 받은 소설 전통의 주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대적 문자문화의 성립 시기나 조건이 일본이나 서구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던

20) 『동아일보』가 창간 다음날인 1920년 4월 2일부터 민우보의 「부평초」라는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 좋은 예이다.

데서 생겨난 문화적 궤적의 특이함으로 보인다.

3. 유비쿼터스 시대의 글쓰기와 기계적 인간

하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의 관점에서, 인쇄의 기계적 복제 단계를 넘어서서 디지털 복제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인쇄기술의 출현과 발전, 그것의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화에 따른 변천들, 그리고 사진과 영화와 같은 시각매체들의 출현 속에서 발생하는 문자문화의 위기와 변화는 이제 옛이야기와도 같다. 오늘날 글쓰기 방식은 인쇄기술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플루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근대적 읽기와 쓰기는 언어를 대상화하는 행위이다. “읽기와 쓰기를 할 때 우리는 언어로부터 거리를 취한다. 즉, 언어는 이제 더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매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 위에 문자를 찍는 대상이 된다.”[21] 문자문화가 지배하는 근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민족, 시민, 계급과 같은 추상적 존재와의 동일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문자가 언어와는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며 그 속에서 주체의 위치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년필이나 타자기로 글을 쓰거나 인쇄 과정을 거칠 때에는 문자의 제작 과정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문자는 나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의 관찰, 응시, 관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내면화할 수 있는 대상이다. 맥루언이 말한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모습, 거의 최면술에 걸린 것 같은 시각적 자세”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속에 있는 내용, 우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내용을 내면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런 내면화의

---

21) 플루서, 『그림의 혁명』, 김현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p. 51.

시도가 가능한 것은 책과 그 내용이 대상으로서 우리 외부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디지털복제가 만연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글쓰기는 쓰기 과정에서 계산 또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서 경우처럼 외형상으로는 타자기나 인쇄에 의한 글쓰기와 유사해보일지 모르나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산과정을 통해 문자를 화면에 떠오르게 하는 과정이다. 오늘의 글쓰기는 그래서 더 이상 책에 쓰인 내용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내면화하려는 인간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다. 그것은 "기계장치들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일, '미리 쓰기(pre-scribe)'가 된다."[22] 이에 따라 오늘의 글쓰기 기계는 인쇄 기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공정을 거쳐서 문자들을 생산해낸다.

글쓰기가 "기계장치들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일"로 바뀌는 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는 언뜻 보면 인간의 확장, 편리한 도구로만 보인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휴대하지 않으면 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지하철 회전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잔고가 부족하면 사려는 물건을 들고 백화점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신용카드가 단순한 도구 이상임을 말해준다.[23] 스마트카드로 전환되는 순간 신용카드는 마치 나의 신체가 통과해야 하는 회로의 길목에서 어떤 마술 명령('열려라 참깨!')을 내리는 것만 같다. '긁는' 순간 그것은 나를 '전자적 몸'으로 전환시키는 프로토콜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 몸은 전자회로에서 '통과 가능한 신체'로 바뀐다. 이 현상을 전도(傳導, conduction)라고 부를 수 있겠다. 전도는 "도관(導管)을 타고 흐르

22) 강내희, 「'근대문학' 이후의 문학(연구)?」, 『비평과 이론』, 2006. p. 20.

23) 강내희, 「과학기술, 글쓰기, 주체형성」, 한국과학문화재단 편, 『새로 보는 과학기술』, 양문출판사, 2007, pp. 47-48 참조.

는, 나름대로 정해놓은 통신규약(프로토콜)에 의해 정보를 교환하는 현상으로서 접속과 연결, 이끎, 교환 등의 형태를 띤다. '전도'가 일어나면 사물과 사물 사이에는 감응 반응, 즉 에너지, 열, 정보 등의 대류, 교환, 흐름이 일어난다."[24] 스마트카드를 휴대한 몸에 이런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사물로 전환되었다는 것, 글쓰기와 글읽기가 더 이상 외부의 대상과 나의 내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물이 된 내 몸과 다른 사물 몸 사이에 전도가 일어나면 나의 정신은 더 이상 그 문화적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물이 이미 영리해진 것이다.

사물을 영리하게 만드는 전도의 논리가 작동하면 나를 현전시킬 수 있는 방식도 바뀌게 된다. 유효한 신용카드가 없을 때 나는 백화점의 계산대, 지하철의 회전문, 버스 입구를 통과할 수 없는 불량 육질, 호모 사케르일 뿐이다. 이때 나를 나로서 현전시킬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애절한 호소, 나의 영혼과 정신이 아니다. 전도가 지배하면서 나의 형질은 변화하고 말았다. 내 몸을 전자회로에 통과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이 메커니즘, 이 글쓰기와 글읽기는 물론 나에게는 보이지도 감지되지도 않는다. 읽을거리로서의 책이 내 몸 바깥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과는 달리 스마트카드는 마치 나의 신체 형질을 바꾸는 힘을 가진 것 같다. 나의 존재를 이렇게 위상 전환시키는 이 스마트카드를 계속 도구라고, 내 몸의 확장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나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내장되어 내 신체의 작동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글쓰기와 글읽기는 이제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였다. 기계복제 시대에는 글을 외부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글쓰기를 나의 내면의 드러냄으로, 그래서 읽을거리로서의 글을 다른 내

24) 같은 글, p. 47.

면의 외화, 다른 정신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글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내 내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로서, 다른 정신으로서 외부에 존재한다. 이때 글은 플루서가 말한 '해석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한 사물을 설명하면 그 사물은 '자연'이 되고, 우리가 그 사물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신'이 될 것이다."[25] 글이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나'와 같은 정신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루언이 묘사한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 출현한 근대인도 이런 존재라 할 수 있다. 인쇄기술을 통해 근대인들은 인간은 다른 정신세계와 접속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글을 자신의 대화상대로 보는 정신마저 자동화되고 있다. 스마트카드-신용카드를 통제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스마트카드에 어떤 프로그램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글쓰기가 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인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 물론 전통적 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 위에 책을 쓰며, 책을 읽는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도 컴퓨터 화면에서 나타날 때에는 기존의 글과 거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오랜 습성처럼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과거의 잔영에 불과하다. 기존의 종이 위 글과 오늘 화면 위 글은 구성 방식에서 그만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오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글, 디지털 글쓰기는 키보드 상의 입력에서 화면 위의 출력 사이의 과정, 프로그래밍 과정을 철저하게 은폐한다. 이런 점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글은 언뜻 보면 내 정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 같으나 글쓰기 자체는 나의 의식에 의해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이 새로운 글쓰기는 나의 의식 외부 또는 저 이면에 있으며 따라서 더 이상 나의 의식, 정신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설령 '직접'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우리

25) 플루서, 『코무니콜로기』, p. 11.

는 그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글쓰기가 내장된 채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는 과연 글을 읽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글쓰기가 각인되는 대상, 기계에 의한 독해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닐는지? 스마트카드를 휴대할 때, 더 나아가서 컴퓨터 칩을 피부 속에 이식한 상태의 나는 연산 체계,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데 이때 나를 전자적 나, 기계적 나로 만드는 것은 나라기보다는 스마트카드, 연산 체계이다. 영리해진 기계! 그런 기계를 휴대하거나 내장한 우리는 누구인가? 연산 체계에 속한 나는 과연 주체인가?

사실 디지털 글쓰기만이 우리를 기계로 만든 것은 아니다. 위에서 개인 인문주의자, 민족, 국민, 계급 등의 근대적 주체 형태들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살펴본 바 있다. 이들 주체는 글쓰기 기술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매체기술 또는 글쓰기의 효과, 부산물로 인식된다. 맥루언에 따르면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다. 그에게 매체는 인간의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의 연장이었다. 매체를 인간의 확장으로 보면서 맥루언은 매체 또는 매체기술 없는 인간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매체 없이 인간이 없다는 생각은 인간과 매체 및 기술을 분리하며 매체를 도구로만 간주하는 통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체 없는 인간은 없다는 생각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체를 인간의 확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중심은 여전히 인간이다. 매체를 인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매체의 일환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일인 것이다. 인간의 확장으로서의 매체 개념은 '매체는 메시지'라는 맥루언의 또 다른 유명한 명제와는 상충된다. 매체가 메시지라는 것은 매체 자체가 인간의 경험을 주조한다, 매체는 메시지 전달의 중립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메시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매체 자체가 지닌 표현으로서의 기능이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적 차원까지 규정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구술, 수고, 인쇄, 워드프로세서

등 서로 다른 매체의 등장은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수단 상의 변화만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매체의 변화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체가 메시지 자체라면 매체를 과연 인간 중심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26]

맥루언이 '인간의 확장으로서의 매체', '메시지로서의 매체', '구텐베르크 은하계' 등의 개념을 제출한 것은 1960년대였다. '매체결정론'은 그때 이미 매체가 인간 주체를 형성한다는 테제를 제출하였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맥루언, 앤더슨 등의 매체 개념은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도 매체를 계속해서 인간의 확장으로, 즉 도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인간은 기술의 한 효과라고 봐야 하지는 않을까?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런 질문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은 맥루언 등이 살펴본 개인, 민족, 시민, 계급 등의 근대적 주체가 출현한 시기와는 달리, 그리고 맥루언이 그 나름의 매체이론을 제출한 1960년대와도 달리 주체형성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 민족, 시민, 계급을 호명하는 글쓰기가 행해지던 시기, 다시 말해 사람들이 책이나 신문 읽기를 통해 개인 주체가 되고, 민족이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때와 지금의 쓰기와 읽기 경험은 크게 다르다. 종이에 인쇄된 상태로 읽을 때 우리는 텍스트를 우리 정신의 대상으로 간주하

---

26) 매체기술이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은 흔히 '매체결정론'으로 알려져 있다. 매체결정론은 인간적 삶의 변화를 설명할 때 예컨대 계급투쟁과 같은 사회적 요인, 개인 또는 집단의 의지적 개입과 같은 인간적 요인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매체결정론이 매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삶의 결정에 매체가 개입한다는 의미라면 배척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 매체결정론을 글쓰기나 주체 형성에서의 주요 변인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인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상상하는 것은 매체결정론을 비판하기 이전에 일단 매체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다른 변화가 무엇일지 생각하기 위함이다.

게 된다. 물론 텍스트를 정신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인쇄 테크놀로지의 조건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작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정신의 작용을 촉발하는 일, 상상을 발동시키는 일인 것이다. 인쇄기술로 글을 쓸 때 우리는 여전히 글을 음성으로 읽는다. 거기서 글은 타자의 정신으로 이해되고 우리가 수행하는 해석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유비쿼터스 시대의 글쓰기나 읽기 행위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디지털 글쓰기는 우리를 기계로 만드는 것 같다. 이때 기계는 물론 새로운 차원의 기계이다. 인쇄기술이 확산된 뒤 전개된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계가 대거 등장한 적이 있다. 공장제 생산을 가능하게 한 이 시기의 기계도 오늘의 기계처럼 인간을 대체한 것처럼 여겨지곤 했다. 19세기 초에 러다이트주의가 등장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기계들을 파괴하려한 것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 항의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당시의 기계와 오늘 디지털 글쓰기 기능을 장착한 기계는 작동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러다이트들이 파괴하려들은 기계는 인간의 근육, 완력을 대체한 것으로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만 작동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기계는 자동기계에 가깝다. 이 기계는 인간 정신의 작용으로 관리되고 통제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짜인 대로 작동하며, 이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것은 러다이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계-인간의 대체현상으로서 이제 인간이 기계이자 기계가 인간이다. 기계가 이미 '스마트해'지지 않았는가. 아니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GNR 혁명으로 로봇공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특이점'이 도래하여 인간의 지능을 훨씬 능가하는 '로보 사피엔스'가 출현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27]

---

27) "호모 사피엔스와 다양한 인간 변종들이 과거에 함께 서식했던 것처럼

4. 유비쿼터스 시대 인간과 인문학

새로운 글쓰기가 인문학에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글쓰기는 이제 인쇄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디지털기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시적 세계에서 사라지는 경향을 드러내고 코드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만년필이나 타자기로, 인쇄로 이루어지는 글쓰기에서는 문자의 제작 과정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워드프로세서는 외형상으로는 타자기와 유사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과정을 통해 화소들로 이루어진 문자를 화면에 떠오르게 만든다. 인쇄기술에서 텍스트는 알파벳의 선적 연결인 반면에 컴퓨터 화면에서 텍스트는 점들의 합성이다. 그런데 왜 우리 인문학자는 이런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와 로보 사피엔스가 곧 공존할지 모른다. 이런 일은 이전의 동거와는 아주 다르고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우선 로보 사피엔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고 세계적 네트워크 속에 즉각적 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로보 사피엔스는 매년 한 세대의 속도로 진화할지 모른다. 호모 사피엔스는 두뇌-증강된 호모 프로벡투스와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아무 수정을 받지 않은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할지도 모른다"(Douglas Mulhall, *Our Molecular Future: How Nanotechnology, Robotics, Gene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ransform Our World* [Amherst: Prometheus Books, 2002), p. 110).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경이 되면 강력한 인공지능,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평범한 교양인의 역량을 인정받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강력한 인공지능이 일단 나타나면 인공지능들이 스스로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함으로써 자신보다 뛰어나고 지능적인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일단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등장하면(2029년경) 다음은 비생물학적인 지능이 급속히 발전해가는 능력 강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특이점이 가능해지려면 인간지능의 수십억 배 이상 발전해야 하는데, 그런 놀라운 팽창은 2040년 중반에야 달성될 것이다"(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07, pp. 359-60).

첫째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가령 대중교육을 통한 문자문화의 확산을 전제하지 않은 인문학 기획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인문학은 그만큼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최대의 과제로 삼아왔다.[28] 둘째, 인문학은 또한 인간 주체의 문제를 최대의 관심사로 삼아왔는데, 글쓰기의 변동으로 주체형성 조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글쓰기에서 구성되거나 전제되는 주체는 인쇄기술이 전제하는 주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인쇄기술로 양성되는 주체 형태는 추상 또는 상상의 능력을 갖춘 인간이다. 문자 교육은 개인들로 하여금 시민, 계급, 민족과 같은, 자신보다 더 큰 집단과의 동일시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개별 존재들이 시민적, 계급적, 민족적 주체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디지털 글쓰기에서 주체는 오히려 해체되는 경향을 띠는 것 같다. 예컨대 디지털 기술로 작성 가능한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 텍스트로서 인쇄된 책에 사용되는 기존의 선형적 텍스트와는 다르다. 선형적 텍스트는 연속성과 지속성의 원리에 의해 독해됨으로서 주체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퍼텍스트는 처음과 끝이 불분명하고, 내러티브의 불연속적 진행을 허용함으로써 주체의 통일성을 동요시켜 정체성의 파편화를 자아낸다.[29] 하이퍼텍스트의 독자는 이로 인해 정신분열적 주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정신분열적 주체는 다중인격체일 것이다. 그런 주체는 단일한 국가, 단일한 공동체, 단일한 성, 단일한 계급에 소속

---

28) 인문학의 생존에 대학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제도 일반은 인문학의 존립 기반인 문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만약 대학제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 문해력 확대 노력이 없다면 문자문화, 나아가서 인문학의 미래는 극히 불투명할 것이다.

29) George P. Landow, *Hypertext 2.0: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Theory and Technolog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pp. 91-92.

감을 지닌 근대적 주체와는 달리 특정한 귀속감을 갖기 어렵다.

디지털 글쓰기의 등장이 문자문화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늘 인문학의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와서 자주 운위되는 '인문학의 위기'도 인쇄기술의 후퇴와 디지털기술의 전면화, 다시 말해 유비쿼터스 기술 환경의 지배와 관련시켜 생각해야할 것 같다.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문자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오늘 이 문화는 더 이상 과거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인문학의 위기는 '책의 시대'가 끝나고 '화면의 시대'가 열린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인지도 모른다. '화면의 시대'에는 문자, 책, 인쇄 중심의 문화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영리한 기계들과 사물들이 도처에 깔리면, 과거처럼 사물들과 기계들을 인간의 수단이나 대상으로만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 인간이 이미 CCTV의 시선에 의해 포착되는 대상물이고 정보이다. 이런 기술 환경에서 인간의 주체로서의 위상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GNR 혁명'으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이 기계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인간을 주체로 전제하는 인문학은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가? 글쓰기가 인쇄기술에서 디지털기술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서 주체의 위상에 동요가 발생하면, 더 이상 주체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면 인문학은 적잖은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플루서에 따르면 인문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탐구 대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해석'을 지향하는 경향을 지닌다. 인문학은 문학 텍스트, 철학적 담론, 역사적 서술, 언어적 표현과 같은 탐구 대상이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해석자'로서의 인문학자는 이때 대상인 텍스트에 대해 독립적인 주체로서 상정되고, 대상-텍스트와 해석자-인문학자 사이에는 일종의 간주관성이 성립하게 된다. 해석이 필

요한 것은 해석되는 대상인 텍스트가 다른 정신, 다른 주체의 작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구름과 같은 자연적 현상도 용왕이나 신의 조화로 인식되면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해석자-주체와 대상-텍스트는 '너와 나'의 관계로 바뀌고, 해석하는 '나'는 말하는 '너'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또 다른 주체이다.[30]

그러나 디지털, 유비쿼터스 기술 등으로 글쓰기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오늘 인문학이 과연 해석학으로서의 위상만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글쓰기는 글이 기술의 문제임을 주제화하고 전경화(前景化)한다. 물론 인류 역사 시기 초입에 나타난 이래 글쓰기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술에 속해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출구가 보이는 지금 글쓰기는 이미 너무나 오래된 습관으로 변해 있고, 인간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제2의 자연으로 군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크 데리다가 형이상학을 '로고스중심주의' 또는 '음성중심주의'로 비판한 것도 따지고 보면 형이상학의 철학적 담론이 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언제나 이미 '글임'을 외면하는 망각에 가까운 습성에 빠져있음을 꼬집은 것이었다.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는 이렇게 보면 사유가 글임을 밝히고, 글이 '의도', '의식', '현전'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 있으며, 따라서 글, 텍스트, 담론, 서사, 문장을 읽은 일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데서 착안된 새로운 인문학적 기획에 가깝다.

돌이켜 보면 이미 1960년대 정도부터 주체의 기획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주체로 보는 인문학의 기본 이념인 인간주의도 오래 전에 이미 도전에 직면해 있다. '포스트-인간주의'의 도전이 중요한 예이다. 포스트-인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알튀세르

30) 플루서, 『코무니콜로기』, pp. 11-15.

에 따르면 오늘 개인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된 존재이고,[31] 정신분석이 제시한 무의식 개념에 따르면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 비슷한 취지로 푸코는 주체가 발화의 양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담론 속의 '위치'로서 구성된다고 봤고,[32] 데리다는 주체에게 가장 가까운 의식의 현전도 실인즉 글쓰기(écriture)의 형태를 띠며 그 내부에 어떤 거리두기(distancing)가 내장되어 있다고 봤다.[33]

인간주체가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더 이상 자신의 의식에 현전하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른 오늘 더욱 큰 공명을 일으키는 것 같다.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경우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문학은 자신의 영역에서 '정신'을 몰아낸다고 말한다. 키틀러의 이런 생각은 매체를 '인간의 확장'으로, 도구로 본 맥루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이다. 매체가 인간의 확장이라면 기술, 글 또한 인간의 확장이며, 그런 점에서 인문학의 주된 탐구 대상인 글로 된 구성물은 플루서가 말한 해석의 대상으로 남는다. 그러나 키틀러에 따르면 매체는 인간과 글로 된

---

31)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On Ideology* (London: Verso, 2008), pp. 44-51.

32) Michel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Books, 1972), pp. 50-55.

33) "어떤 글로 된 기호가 수화자가 부재한 가운데 제시된다. 이 부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혹자는 내가 글을 쓰는 순간에 수화자가 나의 현재 지각 장에서 부재한 것인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재는 멀리 있는, 연기된, 혹은 이런 저런 형태로 그 표상 속에 관념화된 현전일 뿐이지 않은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혹은 최소한 이 부재, 분할, 연기, 차연은 글이 존재한다 했을 때 글의 구조가 성립되려면 어떤 절대적 정도의 부재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글로서의 차연이 더 이상 현전의 (존재론적) 수정일 수 없는 곳이 여기이다. 나의 '글로 쓴 소통'은 글로 기능하려면, 즉 읽을 수 있으려면 모든 특정한 수화자 일반의 절대적 소멸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어만 한다"(Jacques Derrida, "Signature Event Context," *Margins of Philosophy*, tr.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315).

역사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인간에 의해 완전히 포획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그는 문학 작품의 창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작성, 실리콘칩에 프로그램 '굽기' 사이에 어떤 본질적 차이도 없다고 본다.[34]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학 작품의 해석에 심취하는 인문학의 고유한 영역, 기능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인문학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여기서 쉽게 답변을 제출할 수는 없다. 기껏해야 인문학은 이제 자신이 어떤 지적 기획인지, 어떤 종류의 기획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아마 새롭게 요청되는 인문학은 영리한 기계들과 함께 하는 지적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5. 결어

물론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과연 인간을 기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기계로 간주될 경우 전통적으로 인간을 주체로 보는 인문학의 기본 관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인간주의에 속한다.[35] '이론적 인간주의'는 인간을 주체적 존재로 간주한다. 주체는 여기서 자기 자신임을 스스로 아는 존재, 자신과의 단절이 없는 존재, 자신의 의식에 현전하는 존재, 그리하여 의식으로 충만한 존재이다. 주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을 자

34) "Friedrich Kittler,"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riedrich_Kittler. Friedrich A. Kittler, *Literature, Media, Information Systems* (Amsterdam: G+B Arts International, 1997), p. 147.

35) '이론적 인간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Louis Althusser, "Marxism and Humanism," in *For Marx*, tr. B. R. Brewster (London: Verso, 1982) 참조.

기 행동의 근원으로 삼고 목표로 삼는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체는 자기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인간주의가 "인간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판결한다"[36]고 여기는 것은 이와 같은 주체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주의는 이리하여 인간중심주의로 곧잘 전환된다. 인간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만물의 영장이고 역사의 주인이며 목적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론적 인간주의 전통에 속하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인간주의(liberal humanism)가 수많은 타자들을 서구 부르주아 주체의 대당으로서 설정하고,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언제나 우위에 둔 것도 그런 '선민의식' 때문이다.[37] 또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유주의적 인간주의가 상습적으로 제국주의, 인종주의, 과학주의 등과 결탁한 것도 이런 입장이 이방인 타자에 대한 주체-자아의 우위를 입증해준다고 본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주체인 것일까? 글쓰기가 "기계장치들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일"이 되면 글쓰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계적 작동이 되고, '글'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글이 우리 몸에 내장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 글을 쓰고 읽는 주체가 아니라 글이 쓰이는 대상, 프로그램에 의해 읽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인간 존재의 위상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 짜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존재를 가리켜 과연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 인문학자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일까?

---

36) Patrick Fuery and Nick Mansfield, op. cit. p. 8.

37) 19세기 리버럴 휴머니즘의 대표적 이론가 J. S. 밀의 경우 자신의 대의정치론에서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도인들은 자치권을 갖지 않는다고 태연하게 주장했다. John Stuart Mill,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Henrey Regnery Company, 1962), p. 315.

인문학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반성과 통찰,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설령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해도 난처한 질문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다시 요청되는 반성과 통찰, 비판의 자리는 어디서 확보되는 것일까? 이미 프로그램된 지점? 아니면 새로운 창발에 의해 확보된 지점? 유비쿼터스 시대는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을 주제로 하는 인문학은 어떤 지적 기획인지 다시 근본적으로 물을 것을 요구한다. 아니 그런 질문 제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인문학, 어쩌면 인문학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지적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인문학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과제를 짊어질 수 있을까?

인용문헌

강내희. 「종결어미 '-다'와 한국의 언어적 근대성」, 『근대성의 충격들』. 『흔적』 3. 서울: 문화과학사. 2008. pp. 171-204.

_____. 「과학기술, 글쓰기, 주체형성」, 한국과학문화재단 편, 『새로 보는 과학기술』. 서울: 양문출판사. 2007. pp. 29-56.

_____. 「'근대문학' 이후의 문학(연구)?」, 『비평과 이론』 제11권 2호. 2006. pp. 5-28.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서울: 소명출판사. 2000.

심광현.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예술-학문-사회의 수평적 통섭을 위하여』. 서울: 문화과학사. 2009.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서울: 민음사. 1997.

맥루언, 마셜,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앤더슨, 베네딕트,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서울: 나남. 2003.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 naver.com/item.nhm?dirId=204&docId=24166. (접속일자: 2008.5.10)
「인텔리전트빌딩」,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 com/100.nhm?docid=129803. (접속일자: 2008.5.10)
플루서, 빌렘, 김성재 역.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_____, 김현진 역. 『그림의 혁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커즈와일, 레이, 김명남・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서울: 김영사. 2007.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towards an Investigation)." *On Ideology*. London: Verso. 2008. pp. 1-60.
_____. "Marxism and Humanism." In: *For Marx*. Tr. Ben Brewster. London: Verso, 1982. pp. 219-47.
Derrida, Jacques. "Signature Event Context." In: Margins of Philosophy. Tr.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Foucault, Michel.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 A. M. Sheridan Smith. New York: Pantheon Books. 1972.
"Friedrich Kittler"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 Friedrich_ Kittler.
Fuery, Patrick and Nick Mansfield. *Cultural Studies and Critical Study*.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Tr.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Harvey, David.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Kittler, Friedrich A. *Literature, Media, Information Systems*. Amsterdam: G+B Arts International. 1997.

Landow, George P. *Hypertext 2.0: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and Technolog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Mill, J. S.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Henrey Regnery Company. 1962.

Muhhall, Douglas. *Our Molecular Future: How Nanotechnology*, Robotics, Gene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ransform Our World. Amherst: Promethues Books. 2000.

Ong, Walter.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Methuen, 1982.

"Ubiquitous computing,"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Ubicomp. (접속일자: 2008.5.10)

Writing, Subject Formation, and the Humanities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

Kang, Nae-Hu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how the coming of the "ubiquitous age" will affect the formation of human identity, and how this changed situation will create new tasks for the humanities, transforming their eventual n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what will, with the rise of ubiquitous computing, happen to the technologies of writing deserves special attention. Traditionally, the humanities have been a culture of writing, with a special emphasis on literacy and the book. Howeve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underway has led to transform the nature of writing and its consequences for subject formation. For, thanks to digital reproduction, information can now be transmitted by way of "conduction," which can be seen as a new method of writing. In this paper, I am asking how this new logic of writing would affect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 subjectivities and identities are formed, how this change would transform the way the humanities are conducted.

Key words : ubiquitous computing, writing, subject formation, humanities, digital reproduction, conduction

강내희
소속: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화연구학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1동 421-43
전화번호: (02) 820-5102
전자우편: kangnh09@gmail.com

이 논문은 2009년 10월 29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